



2026 VISION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성경이야기

친구들, 반에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그래서 친구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해 주거나,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맞아, 네 말이 맞아!”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 줄 수 있지만, 거짓말이나 아첨으로 얻은 마음은 오래갈 수 없어요. 오늘 성경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계획을 세운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오십 명까지 앞세웠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성문으로 나가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압살롬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네 말이 옳다. 내가 재판관이라면 너를 잘 도와줄 텐데!”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절하려 하면 손을 잡아 일으키고 입을 맞추며 친절하게 행동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흠뻑했다”고 말씀해요. 하지만 압살롬의 친절에는 숨겨진 목적이 있었어요. 그는 정말 백성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어요. 결국 다윗에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러 헤브론에 가겠다고 말한 뒤, 몰래 사람들을 보내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외치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까지 자기 욕심을 이루는 데 이용한 거예요. 그렇게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은 점점 많아졌어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거짓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인기보다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함께 외쳐볼까요? “사람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요!”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예배순서

사도신경		다	같	이
찬송	가장 특별해	다	같	이
말씀봉독	사무엘하 15:1~12절	다	같	이
설교	사람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요	설	교	자
말씀나눔		다	같	이
합심기도		다	같	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	같	이

- ★ 찬송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양



가장 특별해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압살롬처럼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거짓되게 행동하지 않게 해 주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정직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나요?
2.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게 행동했던 적이 있나요? 이번 한 주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